내 지갑보다 천국이 더 가깝다

(막6:6b-13)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지갑보다 천국이 더 가깝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지갑보다 천국이 더 가깝다'
이 이야기는 지갑을 챙기기 전에 먼저 천국을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늘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지갑이라는 게 보통 자켓을 입으면 안주머니에 넣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가슴에 닿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보다 천국이 더 가깝습니다.

지갑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황에 몰려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삼수할 때였는데, 어머니께 학원비를 받아가지고는 학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낭도 하나 매지 않은 채, 그냥 입은 그대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부터 남부지방을 훑으면서 전라도 지방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남원에서 버스를 타고 화엄사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한 청년이 내게 다가오더니 머물 곳이 있느냐고 묻기에 없다고 했더니, 자기 집이 여관을 하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객을 하러 나온 거지요.
그래서 '나는 여관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지갑에 돈이 떨어졌느냐고 물어요.
그때는 화엄사로 들어오는 버스비를 내고 나니까 동전 몇 개 남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느냐고 묻는데, 저는 그때까지 지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원래 지갑은 없었고 주머니에 돈을 그냥 넣고 다녔는데, 그 주머니에 넣었던 돈이 다 떨어진 건데 지갑을 잃어버린 게 돼버린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를 데리고 가서 공짜로 자기가 밥상을 다 차려주고, 밥은 다 식었더라고요, 손님들 주고 나서 늦은 시각이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이고 온 식구가 나와서 전송을 하면서 그때 돈으로 3천원을 제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광주로 나와서 있다가 대전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전에서는 또 대전침례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돈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갑' 중요하지요?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갑이 얄팍하면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갑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만 예

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마인드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굉장히 temporary 한 일시적인 현상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명하시는데 인류역사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행과 관련지어서 한 얘기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고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명령은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행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고 신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지팡이라는 게 어떤 용도의 지팡이를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뜻하고자 하는 의미 자체는 마태나 마가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고, 도대체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식당도 편의점도 없는 이런 시대에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배낭이나 전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 필수품들을 넣어가야 되는 것이 배낭이고, 전대는 지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갑.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전대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낭도 지갑도, 양식도 배낭에 넣어야 되겠지요?
양식은 배낭에 넣을 것 중에서 특별히 따로 분류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배낭에 필수품목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지갑을 넣어야 됩니다.
여행자의 필수품이지요.

그리고 두벌 옷도 갖지 말라는 것은 꾀죄죄하게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더럽게 냄새나게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필수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이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배낭에 들어가야 될 필수품이 꼭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돈이 필요하게 될 것도 아십니다.
옷이나 신발이 다니다보면 꼭 더 필요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의 말씀일까요?
이들이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전부 이 세상, 이 땅 위의 삶의 경계 안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하고, 사업을 좋아하고, 이 걱정 저 걱정, 맡은 임무가 있어서 걱정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있는 것 이게 더러운 거예요.
세상일이 더럽거나 세상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과 마음이 붙을 때 마음이 더러워지는데, 이 더러워지도록 살살 꼬드기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하기를 '야, 너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지요? '어이쿠, 양식이 떨어졌는데 준비해야 되겠네?'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귀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넣어주고 우리는 설득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저 꼴로 돼갖고 되겠나?'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누구에게, 이 세상의 무엇에 붙들어 묶어두게 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과 붙으면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둘이 붙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김치가 더러운 게 아니지만 내가 맨손으로 만질 때, 손이 더러워지고 김치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인가?
'너희가 회개하라고 전파할 것이다, 그럼 회개가 뭐냐 하면, 마음이 다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게 죄라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되는데, 너희 스스로가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껴야 가까이 온 천국을 가까이 온 것으로써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 스스로가 가까이 온 천국을 느끼면서라야 천국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까이 온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가까이 온 천국을 어느 정도로 가깝게 느껴야 되는가 하면, 전대보다도 더 가깝게, 배낭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라.
등에 봇짐처럼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배낭보다 내 품에 넣고 다니는 지갑보다 더 가까이 온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천국을 먼저 찾게 되면, 그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섭리와 뜻 안에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품목들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 여행을 떠나려면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쓸 물건들을 챙겨서 배낭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경비가 들 테니 지갑에 돈을 챙겨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천국을 전한다고 한다면 천국보다 양식이 먼저고 돈이 먼저인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아직도 양식과 돈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가까이 온 천국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죽음 다음에 머~얼리 멀리 죽음 다음에나 관계되는 것으로 미뤄놓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돈 먼저 양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천국은 죽은 다음의 일로 미뤄놓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화엄사에 내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갑이라는 게 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 이게 바로 지갑이에요.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지갑에 돈이 없다고 당장 잠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지? 그렇게 지갑의 문제가 가깝게 느껴지지? 그렇다면 넌 천국을 못 느끼는 거야!'
천국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느낄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여러분, 오래 전에 한 컵라면 광고 중에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저기 봐라, 저기 봐!' 그래서 보니까 금강산이에요,
그때 그 광고의 주인공이 '와, 금강산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금강산도 식후경!' 하면서 컵라면을 딱 들이밉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한국인의 매운 맛, 신라면 큰사발!' 할 때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뒤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금강산을 배경으로 해서 화면 가득 컵라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면을 거쳐서야 금강산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천국의 경우는 달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이 말은 경험상으로도 백배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배고픈데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다워서 구경하는 일이 좋다고 해도 배고프면 끝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식전경입니다, 식후경이 아니라 식전경.
천국을 먼저 찾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천국이 내 것이 돼버린 후에는 천국의 섭리와 뜻 안에서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신라면 큰사발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천국을 전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갑이 얄팍합니까?
당장 다음 주의 끼니가 없어요?
아이들 대학등록금을 댈 수가 없습니까?
당장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걱정해야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먼저다, 천국이 지갑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갑이 두툼하다고 만족해하지도 말고, 지갑보다 먼저 천국이 앞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라.
주님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두벌 옷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과 동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한 중에 천국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나중에 찾지 말고 천국을 지갑보다 먼저 챙기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이 내 것이 된 뒤에 가보면, 지갑문제 해결되고, 배낭에 들어갈 필수품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천국 안에서 천국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뜻대로 움직여가다 보면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올 것이고, 내 몸에 걸쳐질 것이 다 걸쳐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꼭 들어가야 될 돈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주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식전경이다 이거예요, 먼저 천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도 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가까이 온 천국을 가까이 온 것으로 전하려면 가까이 온 것으로 먼저 느끼라는 얘기를 지금 여행을 떠나보내시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갈 때와 안 갈 때, 다 예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에 주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가까이 가져온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느끼게끔 하시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보다 먼저, 지갑보다 먼저, 필수품보다 먼저 천국을 챙기고 났을 때 천국으로부터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갑보다도 더 천국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temporary하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다 십자가로부터 떨어져나갑니다.
즉,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갑보다 배낭보다 천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갑에 대한 생각과 배낭에 대한 생각,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갑에 대해서 죽고 내 배낭, 필수품목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죽이세요.

그러면 천국이 내게로 느껴지고 내게로 와서 내 것이 됩니다.
천국이 느껴지면서 지갑걱정 배낭걱정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지금은 주님께서 '배낭을 준비하지 말라,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면 지갑걱정 배낭걱정 안 하게 되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지갑을 열어보면 필요한 일에 쓰일 만큼 지갑 안에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험해 보세요.
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고 제일 먼저 느끼고 있는 이 천국의 뜻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지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돈은 쫓을 것도 신경 쓸 것도 손을 뻗어 잡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천국에서 들어옵니다.
'야~ 그런데 왜 나는 안 돼?'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다’
그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천국을 갖게 되면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돼버릴 거예요.
천국을 먼저 갖고 천국으로 배불러보면 무엇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다 구분이 갑니다.
천국으로 배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건질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품에 넣고 다니는 내 지갑보다 더 가깝고, 필수품을 넣고 등에 메는 배낭보다 가까운 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양식문제 옷 문제 돈 문제 모든 것이 천국 안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 자만이 천국을 가까이 온 것으로서 전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갑의 얇음과 두꺼움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배낭으로 상징되는 삶의 필수품목들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절실한 것들보다 더 절실하고 더 가까이 온 것이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적인 절실함과 가까이 온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된 천국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